

만남

02

2022
통권 576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2021 성탄음악회 열려 - 외쳐라 할렐루야! 왕이 나셨다

2021년 성탄음악회 ‘외쳐라 할렐루야! 왕이 나셨다’가 지난 12월 24일(금) 오후 7시 본당에서 성탄절 음악예배로 드려졌다. 호산나찬양대가 주관한 음악회는 장세완 장로 지휘로 호산나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 중·고등부 찬양대와 초등부 박서진이 출연하여 크리스마스 캐럴과 찬양음악 15곡을 다채롭게 선사했다. 음악회가 무르익어가며 회중들도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는 박수갈채 속에 성탄 축하의 밤을 누렸다.

12월 25일(토) 성탄예배는 전 세대와 함께 하는 예배로 드렸다. 2부 예배는 사랑부와 중·고등부 가정이, 3부 예배는 영·유아부와 유·초등부 가정이 촛불점화 후 공동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렸다. 성탄예배에서 김운성 목사는 ‘표적-구유에 누이시다(누가복음 2:8~12)’ 제하의 말씀으로 “구유에 누우신 아기예수가 메시야의 표적이다. 그 표적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성탄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전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집사

교회표어

행진하여 가라
(신명기 1:6~8)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기쁨은 뒤로 미루고 김운성

2022 비전 04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김형찬

기획연재 07 로마 도시, 크리스천에게 주는 메시지 성서적 접근 양지청

다음세대 15 행진하며 나아가는 영락 중등부 광영진

18 믿음의 교사로 세워지는 영·유아·유치부 홍지연

20 웹툰 <사랑의 전달자> 이화선

땅끝까지 이르러 22 영성과 지성을 갖춘 기독 인재양성 75년 우수호

야곱의 우물가 25 광야의 길을 인도해주신 ‘말씀대로 365’ 영락미술인선교회

영락의 울타리 28 잊고 있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남경식

30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 박이달

34 내 눈에 맞는 좋은 안경 고르기 김정훈

문화광장 37 영광과 찬양을 올리세~ 심규주·이승우

40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탁현수

41 명령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갑시다 고윤숙

교회소식 42 신년예배 외

46 2022년 목회 분담표

48 2022년 신입교역자 프로필 / 제직회

50 2022년 제직부서 신입 차장

51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52 2월 목회력

표지설명



교육주일 특별예배에서 이현철 작곡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육부 연합찬양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사진 이상현 집사(영락포토)

기쁨은 뒤로 미루고

김 운 성 위임목사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여호수아 24:25~28)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찬란한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위대한 영광에 사로잡혔습니다. 제자들은 어서 빨리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하신 이유는 아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의 주님이 되시는 순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완성되지 않은 일로 흥분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제자들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많은데도 너무 일찍 승리를 선언합니다. 마치 종료 휘슬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긴장을 풀 축구 선수들과 같습니다. 그러다 종료 직전에 골을 먹으면 지는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은 가나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구별하셔서 함께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과 서쪽의 땅을 얻어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얻었을 때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 우리 땅이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으로 생각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절반은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얻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얻는 것도 중요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가나안을 얻은 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면, 그때는 충분히 기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의 삶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답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 것인지, 이것은 아직 남아 있는 과제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들은 가나안에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겔에 모아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25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겔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후 여호수아는 큰 돌을 여호와와 성소 곁의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증거의 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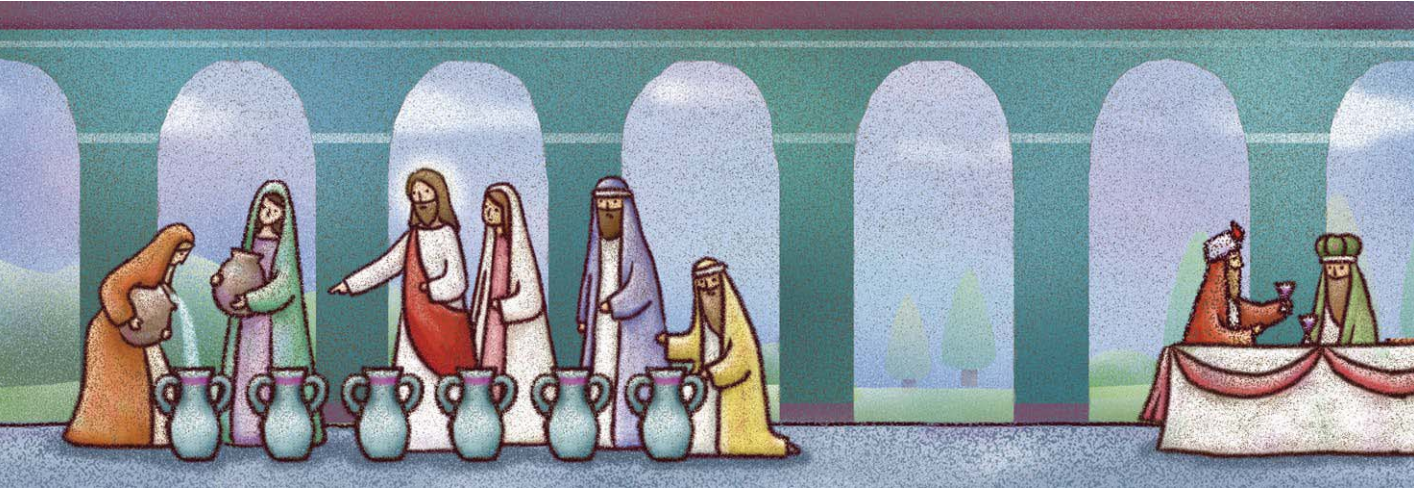
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문제는 백성이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과연 거기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멸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은 그 자체로는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얻는 것만으로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목표했던 가나안을 얻을 때, 조금만 기뻐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뒤로 미뤄야 합니다. “아직 기뻐하기엔 이르지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때 기뻐해야지요”라고 해야 합니다.

영락교회의 2022년 목표는 <행진하여 가라>입니다. 우리도 행진하여 도착할 가나안을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진하여 가나안에 도착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가나안에 도착할 때 절반만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 것에 기뻐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며 겸손합시다. 기뻐하면서도 가나안에서 말씀을 따라 성도답게 살아갈 각오를 두려움과 겸손으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언젠가 온전한 기쁨을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만남**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그만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이들에게는 굉장히 곤란하고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곤란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십니다. 그것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자리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연회장을 비롯하여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고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요한복음 2:10)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내놓는구만!”



김형찬 목사
용인·화성교구
새가족부

이들은 이렇게 포도주를 맛보며 그 맛을 즐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요한복음 2:9a)

이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자신이 마시는 포도주가 어떻게 났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 포도주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그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을 즐기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첫 번째 그룹과는 달리, 이 기적의 자리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요즘으로 하자면 일일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요한복음 2:9)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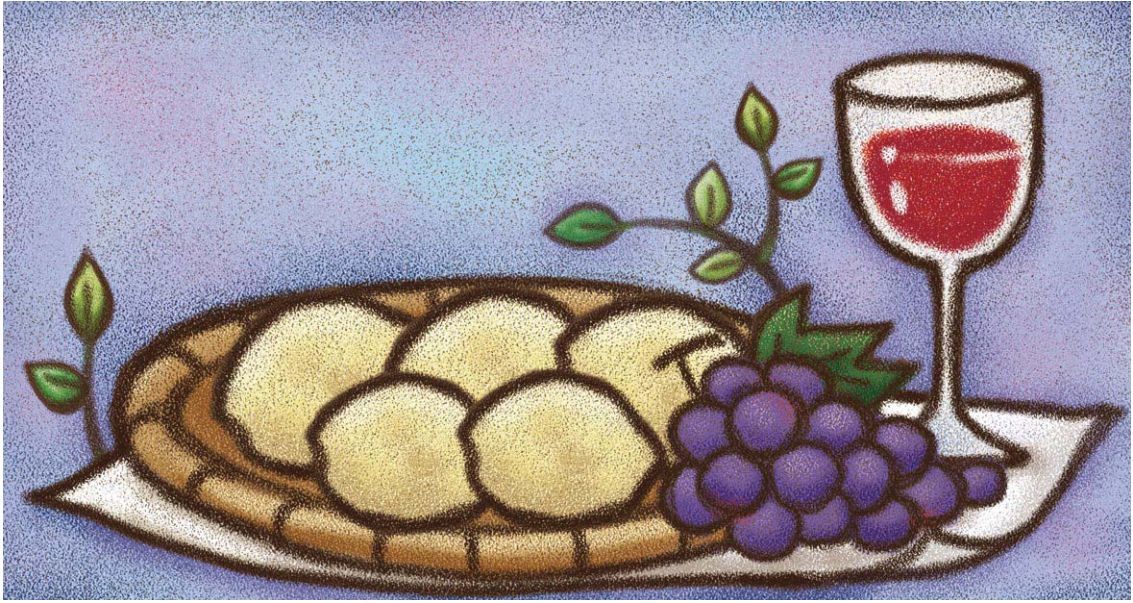
새해, ‘행진하여 가라’는 말씀에 발맞추어 영락교회 새가족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하인들이 생각

났습니다. 영락교회 새가족부가 이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 그냥 인생의 즐거움을 즐기는 삶입니다. 그냥 한 번뿐인 인생, 즐겁고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삶입니다. 첫 번째 그룹, 오늘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수많은 사람처럼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지금, 오늘 내가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삶입니다.

반면, 두 번째 삶은 하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하인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지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손님들을 섬기고 대접하느라 이들은 포도주의 맛도 몰랐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함께 참여했다는 즐거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포도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즐거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기쁨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영락교회 새가족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영락교회에 500명이 넘는 새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400명이 넘는 분들이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고 영락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락교회 새가족부는 올해도 조용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5)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23)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올해도 영락교회에 전도의 귀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락교회에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시길 합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

리고 새가족 접수처를 비롯하여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는 교실에서 새가족을 주님처럼 여기며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하인들처럼 조용히 맡겨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많은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2022년의 믿음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만남**

로마 도시, 크리스천에게 주는 메시지 성서적 접근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는 이름 자체로 유명하다. ‘모든 길은 로마로’(All road to Rome). 로마제국과 로마교황청으로도 유명하다. 기독교가 공인된 곳도 로마이며, 성경의 중심인물 바울의 행적으로도 연구해야 할 곳이다.

로마(이탈리아어: Roma)는 이탈리아의 최대도시이며 이탈리아의 수도이다. 테베레강 연안에 있으며, 여름에는 고온건조한 지중해성 기후다. 로마의 행정구역 면적은 1천 285.31km², 로마 수도권 인구는 400만 명이 넘는다.

밀라노나 나폴리에 비해 면적이 3~4배 넓은 편이고 오히려 로마시의 면적과 밀라노와 나폴리의 면적이 비슷하므로 세 도시 모두 300만 정도로 비슷한 규모의 메가폴리스 도시라 볼 수 있다. 도시의 위계(hierarchy)가 존재한다. 여름에는 고온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이다.

성경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로마는 황제들의 압정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생존하며 끝내 승리한 역사



양지청 장로
홍보출판부 부장
서초교구
GDI 대표회장

를 도시 곳곳에 남기고 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어 긍정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선물로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등장은 자다가 깬 때이다. 너희가 이때를 알지니 새벽이 가까워 왔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패트릭 기디스(Geddes)의 영향을 받은 역사·과학기술 철학자 겸 도시학자 루이스 머포드(Mumford)는 『역사도시(The City in History)』라는 책에서 로마가 최초의 네크로폴리스(Necropolis)로 우뚝 섰다고 표현하고 있다. 로마의 질서, 로마의 정의, 로마의 평화(Rome's order, Rome's justice, Rome's peace)는 야만인들에 대한 잔혹한 착취(exploitation)와 억압(suppression)에 의해 세워졌다고 분석한다.

로마인들은 여러 도시를 건설했다. 로마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도로는 선형이며 남북과 동서가 접하는 곳에 행정동, 시장 등을 위치시킨다. 식민지 형태로 세운 도시가 있고 예루살렘과 같이 수많은 반란에 의해 파괴 후 재건립한 도시도 있다. 유럽, 아프리카 등에도 수많은 도시를 세웠다.



런던 패딩턴역에 걸린 시계. 숫자가 로마자로 표기되어있다

또한, 로마 하면 일반적으로 로마 숫자, 로마자 표기법이 눈에 들어온다.

로마 숫자는 고대 로마에서 쓰인 기수법이다. 로마 문자에 특정수를 대입하고 이를 조합하여 수를 나타낸다. 1에서 10까지는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와 같이 표기한다. 11은 XI이라고 표기하고 12는 XII로 표기한다.

로마 숫자는 수를 시각화하는 기수법에서 발전되었고 로마제국에서 퍼져 유럽 곳곳에서 14세기까지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는 시계의 시각 표지나 주화, 올림픽 대회 등 특별한 경우에만 로마 숫자가 사용된다. 로마는 화폐뿐 아니라 숫자, 다리, 위생시설 등 토목공학, 군사기술 등이 매우 특징적이다.

로마 관련 신화는 현대문명과 문화 곳곳에 스며있다. 로마 건국 신화에 따르면 로마는 기원전 753년경 건국으로 긴 역사를 자랑하지만, 인류는 이미 이 지역에 살기 시작해 오래된 도시를 형성했다. 3000년이 지난 것이다. 초기 로마는 라틴인, 에트루리아인, 그리고 사비니인으로 구성되었다. 한때는 서양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로마제국의 수도였고, 로마 가톨릭교회의 중심지였으며, 그 역사 덕분에 유럽 문명사회에서는 로마를 가리켜 ‘세계의 머리(Caput mundi)’, ‘영원한 도시(la Città Eterna)’라고 부른다. 서로마제국이 멸망한 후에는 교황의 정치적 영향이 로마시에도 작용했다. 서기 8세기부터 1870년까지 로마는 교황령의 수도가 되었다. 이탈리아의 통일 이후 1871년에 이탈리아 왕국의 수도가 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이탈리아의 수도로 자리 잡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이라고도 부르는 피우미치노 공항은 로마 시내에서 약 35km 떨어진 라치오 주 피우미치노에 있어서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으로 부르기도 한다.

공항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탈리아의 위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이름을 따 왔다. 다빈치는 융복합인간으로 연구의 대상이고 한국 속초에도 갤러리가 조성된다.

밀라노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인 말펜사 국제공항과 함께 이탈리아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공항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인천공항으로 연결된 공항으로 관문공항이다. 또 반복하지만 기독교에서 로마는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이다.

바티칸이라는 도시형 국가도 로마에서 분리·독립한 로마의 일부이다. 교황령으로 독립한 이곳에는 과거의 기념 석조물이 집중해 있다.

‘흐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Rumon’, ‘Rumen’은 테베레강의 옛 이름인데, 로마라는 단어가 이 동사에서 유래했을 가능성과 함께 ‘힘’을 뜻하는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로마제국이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되는데 로마 공화국 이전의 국가체제이다.

로물루스의 건국 이후 244년 동안 7명의 왕이 통치한 로마 왕정 체제를 이루었다. 기원전 509년에 마지막 왕이 폐위되었고, 이후 로마는 귀족들이 주도하는 로마 공화정 체제로 약 450년간 운영되었다. 로마는 기원전 2, 3세기 많은 전쟁을 통해 지중해를 장악하고 지중해 맹주로 부상한다. 끊임없었던 권력층의 내분 암투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스파르타쿠스의 반란(B.C. 73~71)과,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의 제1차 삼두정치(B.C. 59~54)가 이어지면서 대 격변의 시대였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B.C. 58~51)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내전(B.C. 49~

45)의 승리를 통해 종신 집정관으로 권력을 잡지만, B.C. 44년 공화정 지지파인 브루투스 등에 의해 암살당한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에 의한 제2차 삼두정치(B.C. 43~33)가 뒤따랐지만, B.C. 31년 악티움 해전을 통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유일의 권력자가 되어 로마제국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시기를 거친 시점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7km 남쪽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현인 동박박사가 방문하기도 했다. 나사렛예수로 일컬어지듯 나사렛은 예수님의 어릴 적 고향으로 나오는 북쪽의 도시이다. 율법의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들어오게 된다.

B.C. 27년부터 A.D. 68년까지 100여 년간 지속한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가 네로 황제의 자살로 막을 내리고, 네 명의 황제의 해라 불린 A.D. 68년 내전의 승자인 베스파시아누스에 의해 플라비우스 왕조(A.D. 69~96)가 열린다. 플라비우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암살 이후, 로마제국의 황금기인 오현제 시대(A.D. 96~169) 또는 파스로마나 시대라 불리는 네르바-안토니누스 왕조가 뒤따랐다. 로마제국의 영토를 극대화한 트라야누스 황제(A.D. 98~117)는 명군이다. 이 시기 로마 인구수는 100만 명이 넘어 당시로써는 세계 최대의 도시로 성장한다.

A.D. 192년, 콤모두스 황제의 암살 이후 내전과 암살이 반복되며 제국의 위기를 사두 정치로 막으려 하기도 한다. 40여 년간 20명의 황제가 암살되었다. A.D. 330년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는 천도하며 현 이스탄불 위치에 있는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명명한다. A.D. 395년에 로마제국은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 사후 동로마제국

과 서로마제국으로 갈라지게 된다.

로마제국은 한때 수도가 네 곳이었다. 지금의 밀라노인 메디올라눔, 현 터키지역의 니코메디아, 현 독일지역의 트리어, 현 세르비아지역의 시르미움이다. 이후 동로마제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서로마제국은 이후 라벤나로 천도하면서, 로마시는 정치적 중요성을 잃게 된다.

4, 5세기에 훈족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서고트족이나 반달족의 약탈을 받으며 서로마제국은 쇠약해지기 시작한다. 410년에 서고트족에 의해 로마가 함락되고, 455년에는 반달족에 의해 로마가 다시 함락된다. 476년, 게르만 용병 장군 오도아케르는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시키고, 결국 서로마제국은 멸망하게 된다.

르네상스의 중심지

6세기 이후 동고트 왕족을 정복한 동로마제국과 랑고바르드 왕국 등 몇몇 게르만족 왕국의 지배를 거쳐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가 등장한다. 800년 샤를마뉴가 로마교황청에 로마의 지배권을 주었다고 하나,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교황령의 수도 번성기를 누리던 로마는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교황 니콜라오 5세의 치세에는 성벽 개수, 궁전 건설, 교회 수복 공사 등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유명한 예술가나 건축가들이 로마에서 활동하게 되었으며, 15세기 말엽에는 미켈란젤로, 브라만테, 라파엘로 등 거장들이 교황을 위해 예술 활동에 전념했다. 그러나 1527년 신성로마제국의 루터교 용병들의 침략을 받아 황폐해지면서(이른바 로마 약탈 사건) 르네상스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초기 도시가 그리드 패턴을 형성한 것은 아니며 밀도가 높아지면서 중심과 주변부가 분리되는 형

태를 취하게 된다. 16세기 말 포폴로 광장에서 도시 중심부로 연결되는 세 개의 도로를 닦았으며, 광장과 샘도 만들어 찬란했던 로마의 모습을 복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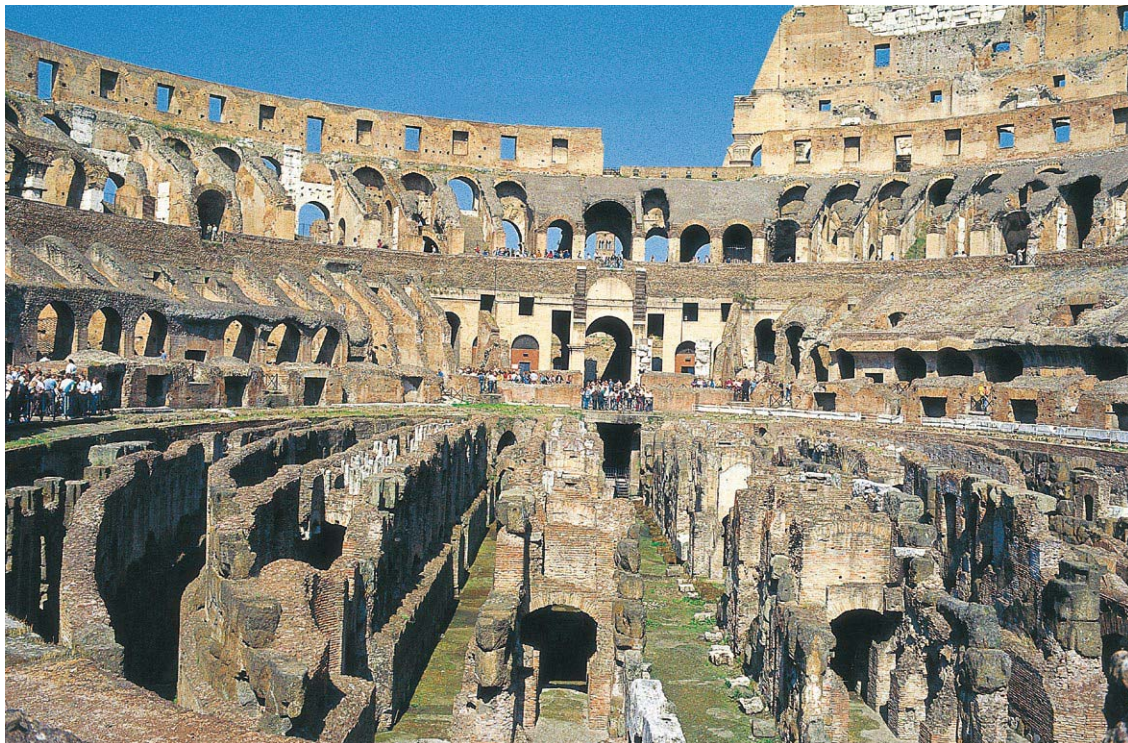
성 베드로 대성당의 공사가 끝난 것도 이 시대이다. 대웅 종교개혁 시대 로마의 특징인 바로크 양식은 17세기의 건축물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 시대에 베르니니나 보로미니와 같은 조각가와 건축가들이 로마의 외관을 바꾸어갔다. 18세기에는 교황의 통치 아래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스페인 계단 등에서 볼 수 있는 18세기 전반의 로코코 양식의 건물은 이윽고 신고전주의라는 독특한 건물로 대체되었다. 1797년 나폴레옹 1세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점령, 다수의 귀중한 미술품을 약탈했다. 나폴레옹 1세가 몰락한 후 빈 회의의 결정에 따라 로마는 다시 교황령이 되었다.

로마는 성경과 5대 제국(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을 다룰 때 로마제국은 자료도 많고 신약성경과 연관이 무척 많다.

하나님의 세계경영은 로마를 보면 그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 로마제국의 키워드로는 ‘교육’, ‘숫자’, ‘융합’과 중점적으로 ‘관용’을 들기도 한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로마의 속국인 유대 땅에는 헤롯 왕이 있었고 로마 총독도 있는 상황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의 왕을 찾으려 긴장하게 되었다.

로마제국의 중심이 로마이며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로마제국은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도 바울의 선교와 복음은 로마제국주의 숭배 사상에 반대한 것은 중요하다.



콜로세움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제국의 정치·문화·종교적 환경에서 태어나서 기독교가 로마제국주의의 황제 숭배 사상과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당연히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상당한 희생이 있었고 로마 곳곳에 그 흔적이 있을 것이다. 큰 유적이 아닌 곳도 사실 찢줄기가 흐르고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대인의 거주지와 회당공동체

로마에서 유대인 거주지와 그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으나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테베레강 건너편 로마 도시의 상당 부분이 유

대인 소유이자 그들의 거주지였다는 것을 아우구스투스는 잘 알고 있었다. 유대인 중 많은 이가 자유인이었고 로마시민이었다. 그들은 전쟁포로로 로마에 왔지만, 그들의 주인이 그들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며 그들 전통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으며, 특히 거룩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공공연히 조상들의 철학으로 가르침을 받는다.”

유대인의 주된 거주지는 트라스테베레(Trastevere)였고 문서상의 다른 장소도 있었는데, 로마 남서쪽 카페나(Capena) 성문 앞에 있었다던 크벨린페 에게리아의 하인이 그곳이다.

트라스테베레와 하인 두 곳에 유대인 거주지가 있었다는 것은 고고학 증거를 통해 확증되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고대 로마의 13개 회당공

동체 중 서너 개 정도는 이미 1세기부터 존재했다고 한다.

그 회당은 유대인에게 친근했던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딴 아우구스텐저(Augustenser) 회당, 아우구스투스의 사위 마르쿠스 비스파니우스 아그리파(B.C. 62~12)의 이름을 딴 아그리피넨저(Agrippinenser) 회당, 그리고 히브리인 회당이다.

우리가 특정 이름들을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수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도처들의 존재도 중요한 것이다(LegGai 157).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에 존재하였고 그 증거는 매우 많다고 한다.

로마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로마서는 로마서에서 특이하게 많이 논의되는 문제는 로마 기독교인이 이방 세계에서 왔다는 것이다. 그것이 로마서 편지 내용, 그리고 구약성경의 사용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다. 편지의 내용과 구약성경 사용은 유대 기독교 독자들에게 관해 이해의 폭을 넓게 한다.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우호적이면서 경건한 자들이 회당 내에 있었다는 것을 보아 로마 기독교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유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로마에는 유대교, 가톨릭교와 개신교가 혼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고 때때로 다르게 표현했음을 고려하면, 다음 관점은 중요하다. 로마의 문학계와 일반 여론이 반 유대주의 정서를 매우 강하게 선동하고 유대인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어났으며, 특히 유대 율법 준수에 대해 경멸하는 견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의 경우 유대인을 악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의 거룩성을 재차 강조하며,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로마서 7:12). 편지 내용으로 보건대 유대 기독교인은 숫자상 적었던 것 같지만, 소홀히 여길 대상은 아니었다. 로마시의 인구는 번성기 때가 아닌 시기는 100만 명이 못 되었다.

“회당 출신의 그리스도인, 즉 이방 기독교인과 같은 유대 기독교인은 로마라는 도시의 초기 기독교 신학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Before Christ, After Christ는 구분이 되는 것이다.

로마 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있었던 것이 출발이었고 현재이다. 다양한 여행자가 로마에 오고 있고 한 측면보고 느낄 수도 있다.

로마의 가장 중요한 성지인 4대 성당은 바티칸의 베드로, 성모 마리아, 라페란의 요한 성당과 바티칸 바깥에 있는 바오로 성당으로, 이들 모두 가톨릭교 성지순례이다.

바티칸의 중심인 베드로 대성당에서 베드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이다. 예수의 공생애 초기부터 로마 황제 네로 통치 시기인 A.D.54~68년까지 14년간 활약했다. 영국에서 선교하다 로마로 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베드로와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한다. 266명의 교황 중 150명의 교황이 묻혀 있는 베드로성당 중앙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나오는 아피아 가도를 따라 캄파나에서 로마까지는 약 250km가 된다. 베드로가 로마 교인을 돌보기 위해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다. 바울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걸었을 것이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네로황제 시대에 핍박을 피해 이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피신하려 했던 베드로는 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도미네 퀴바디스)”하며 묻자 예수님은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간다”라고 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다. 그 장소가 바로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이다. 그리고 이곳에선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만날 수 있고 바로크 시대의 찬란한 예술가인 잔 로렌조 베르니니의 작품인 교황의 주교좌, 천개 등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성인이 된 수도원 창설자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바로 대성당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로 압송되던 중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곡물선 디오스구로호를 타고 나폴리 서쪽에 있는 보디올(오늘날 puzzuoli)이라는 곳으로 향한다. 퀴바디스교회 근처에 바울이 마지막에 갇혔던 천국 계단교회라는 기념교회도 있다. 바울은 거기서 겨울을 나고 100m 거리에 있는 아쿠에 사비에에서 참수당한다. 이때 잘린 바울의 목이 굴러 세 번 튕 자리가 있었는데, 그 세 곳에서 샘이 솟았다고 하여 세분수교회(Tre Fontane)라는 명칭의 순교 교회가 세워졌다. 세분수교회 안쪽에 천국의 계단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디모데전서를 썼다고 한다. 바울의 목이 잘렸다는 참수대와 더불어 총 길이 17km의 카타콤베도 유명하다. 로마의 기독교 흔적은 화려함 속에 새로운 시대를 탄생시킨 베일에 가린 핏자국 등 위대함이랄까.

이태리는 명품이 많다. 패션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이태리 관문 밀라노, 갈릴레오의 고향 이자 피



베드로성당 앞 베드로상

사사탑이 있는 피사, 폼페이 정치의 폼페이, 쏘렌토 해안의 절경, 세계 3대 미항중하나인 나폴리 항구도 있고, 바티칸 박물관, 교황청 베드로성당의 바티칸 시국 등 방문할 곳이 무척 많다. 로마에는 그 유명한 원형경기장 콜로세움, 정치의 중심지 포로 로마노는 주요 성지순례지이다.

사도 바울의 길

로마 근교에 있는 포로 로마노는 정치의 중심이고, 고대 로마 시민의 생활 중심지로 변영한 문화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도로, 신전, 공회당, 기념비 등이 산재해 있고, 상업, 종교, 정치가 밀집해 있어 로마제국의 발전과 변영, 쇠퇴까지 2,500년 역사의 무대를 보여준다. 대화재로 소실되었으나, 비너스, 로마신전, 원로원, 타투스 아



로마제국의 흔적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포로 로마노

치 등의 웅장한 규모는 로마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압도적이다.

로마는 가는 곳마다 순교자의 흔적이 넘쳐흐른다. 콜로세움은 오전에 기독교인이 죽어가는 장소였다. 죽음은 인간의 권력 앞에 무력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다양한 고초로 죽음을 맞아 주님을 바라며 죽어가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로마의 귀족과 군인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제국의 신민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게 만든 것이다. 네로황제 때 기독교인을 화재로 희생시킨 사건, 갈레리우스 황제 때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성경을 불태우는 사건 등의 역사에서 10대 기독교 박해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로마제국은 실용의 나라로 모든 것을 수용했다. 커피도 생산되지 않지만 수입을 통해 에스프레소

를 즐겼고 로마법 체계를 만들어 근대국가의 근간이 되었다. 고난이 있었지만,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 세계의 종교로 자리매김했고 바티칸은 로마 안의 독립된 국가로 전 세계 가톨릭을 지휘하는 허브센터가 되었다. 로마가 왜 기독교를 수용했는지의 답은 선교 현장에 있다.

로마는 방문하면 방문할수록 신비한 곳이 무척 많으며, 그 의미를 하나씩 찾으면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¹.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 근간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믿음을 갖게 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은 로마를 보면서 느끼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만남**

1 본 글은 로마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와 논문, 책, 인터넷, 성경 관련 자료를 근거로 크리스천들이 방문 시 참고용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지면제약으로 각주를 생략했습니다. 별도 개별책자로 발간될 것입니다. | 사진제공 김한기 은퇴집사

행진하며 나아가는 영락 중등부

코로나 상황 중에 펼쳐진 중등부의 새로운 도전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계획했던 수많은 사역이 취소되거나 위축되었고, 그 어떤 사역도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시간 중등부 친구들에게는 교회도, 학교도, 학원도, 사소한 외출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배 현장을 가득 채우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중등부는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해 유튜브와 줌을 통해 예배가 친구들의 가정으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심방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기에 ‘와이틴즈(Y-Teens)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의 심방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중등부 사역자가 학생들의 집 앞으로 선물을 배달한 후 집 앞에서 영상통화를 이용해 심방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는 친구들이 수련회 현장에 나오진 못하지만 키트와 선물을 미리 가정으로 배달함으로써 가정에서도 은혜로운 수련회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중등부 사역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아웃리치’가 닫히게 되자, 교역자들은 4일간 여수 애양원, 김제 금산교회, 유관순 기념관 등을 미리 탐방하여 은혜의 일정을 영상으로 담

아 ‘온라인 비전트립’을 진행하는 등 지난 2년간 중등부는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라인 사역들을 기획하여 진행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위드 지저스, 위드 패밀리’

작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며 예배의 자리가 조금씩 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진행하지 못한 사역들이 다시 시작될 것을 기대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변화 가운데서도 중등부는 행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2022년을 맞이하여 중등부는 ‘위드 코로나, 위드 지저스, 위드 패밀리’라는 주제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일임해왔다면, 이제는 자녀들 신앙교육의 주체가 부모임을 인정하고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교회와 함께 연합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뿐만 아니라, ‘교회 라인+부모 라인’, ‘주일 라인+평일 라인’이 모두 합쳐진 진정한 ‘올(All)라인 사역’이 될 것입니다.



곽영진 전도사
고양·파주교구
중등부



중등부 최세아, 최세희 학생 가정예배 모습

1) 가정예배

2022년 한 해 영락교회는 ‘영락 오이코스’라는 이름으로 전교인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가정예배는 첫 시작부터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가정 역시 이를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영상의 인도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정예배 영상을 제공하며,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미션을 통해 참여를 독려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정예배 가운데 온 가족이 삶에서의 변화를 체험하기를 기대합니다.

2) 가족이 함께하는 수련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현장에서 대면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전처럼 함께 숙식하며 진행하는 수련회는 아직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중등부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저녁 집회는 현장예배로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첫째 날(금)은 학생들에게 맞춰진 프로그램과 집회로 진행하고, 둘째 날(토)은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 대화의 장이 열리고 온 가족이 함께 요리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과 기도회를 통해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올라인(all line) 가족 캠핑

코로나로 인해 아직은 중등부 구성원이 모두 함께 캠핑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올라인 가족 캠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마트에서 물품목록에 따라 장을 본 후, 시간에 맞춰 예약한 캠핑장(캠핑 장비가 없는 가정은 글램핑장이나 펜션을 예약. 이마저도 어려우면 집에서 진행 가능)에 이동하여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되는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수행 미션, 식사와 나눔, 온라인 가정예배’를 드린 후 세족식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 후에는 가정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것으로 가족 캠핑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키는 2022년

2022년 현재 중등부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코로나 시대’에 중등부에 올라온 아이들입니다. 현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코로나 이전 대면 방식으로 현장에서 진행했던 수련회와 아웃리치 등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중등부를 경험한 학생은 한 명의 친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중등부 공동체는 새로운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을 품게 됩니다.

1)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만나는 하나님

흔하들 청소년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세상 가치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인격적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중등부 친구들이 걸 어갈 앞으로의 인생길 가운데 2022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정상화 된 뜨거운 예배 현장

코로나는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하며 계획하던 미래의 사역들을 현재로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온라인 예배, 온라인 수련회, 각종 온라인 훈련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 현장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뜨거운 예배의 자리와 눈물 어린 기도의 자리, 그리고 열정 어린

찬양의 자리가 하루 속히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3) 자녀에게 전달되는 부모님 신앙

2022년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는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 가운데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는 교역자도, 교사도 아닌, 부모님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 먼저 부모가 가정에서 굳건히 믿음 안에 서가며,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와 가정들이 바르게 세워가는 다음세대,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년간 영락 중등부의 사역은 새로운 도전과 더불어 ‘재미와 감동’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2022년은 2년간 누렸던 재미와 감동 가득한 중등부 사역을 온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주에 한번 만나는 것으로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기에 가정에서 부모가 함께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져야 함을 인식하며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키는 2022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만남**

믿음의 부모, 믿음의 교사로 세워지는 영·유아·유치부

스펀지의 가장 큰 특성은 물과 액체를 잘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영·유아·유치부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흡수한 것을 동일시하며 따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영·유아·유치부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또 누구에게 어떤 양육과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 개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한 개별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자라가도록 도와주어야 할지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영·유아·유치부는 아이들이 성서적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일’(이사야 43:21)을 통해 이러한 고민의 해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믿음의 부모로 Go! Go!

먼저 부모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한 주 간을 돌이키며 아래 질문의 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자녀와 함께 기도하셨나요?”

“자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나요?”

자녀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신 가정도 있을 테고, 생각은 하지만 실천하지 못한 가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배를 잘 세워가는 가정은 예배의 기쁨이 더 풍성해지기를, 마음은 있어도 아직 실천하지 못한 가정은 예배가 시작되는 은혜가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셔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출애굽기 3: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고, 시간이 많이 흘러 모세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삶으로 가르치고 전수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숨 가쁘게 살아왔던 시대를 잠시 멈추게 만

든 코로나 시대에 부모로 세움을 입은 우리 모두 숨을 잠시 고르고 자신의 신앙을 면밀하게 살피고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허락된 시간,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의 회복’을 이루어서 관계와 더불어 모든 일을 생명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가정을 예배의 성소로 세웁시다. 매주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부모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닌 진리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예요!”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교사로 Go! Go!

이번에는 선생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나요?”

“우리 반 아이들에게 따뜻한 목소리 혹은 글로 연락해 보셨나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전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셨나요?”

우리의 삶은 분주하여, 신경 써야 할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교사로 헌신하면서 주일에 더 많은 시간을 내시고, 섬겨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도 영·유아·유치부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등을 처음으로 배우고 익히는 첫 번째 자리이기에 더욱 중요하

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다지면 자라면서 훨씬 더 아름답고 바르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겠지만, 이 시기를 소홀히 지나가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기도로 그들을 붙들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이가 없으면, 또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세워주는 이가 없으면 신앙이 제대로 전수될 수 없습니다. 성경 기반의 신앙 교육과 예배가 어린아이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므로, 아이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믿음과 말씀을 잘 심고, 싹을 틔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공동체로서의 영·유아·유치부, 그리고 교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본질인 말씀을 함께 붙잡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함께 성장하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길 기도해주시고, 동참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남**



홍지연 목사
영·유아·유치부

사랑의 전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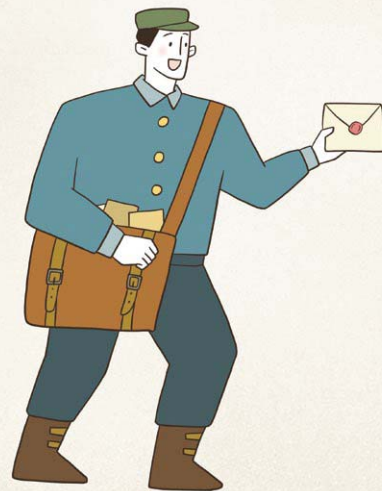
이화선*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겠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삶을 통해 주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 '이화하하'라는 필명으로도 활동하는 이화선 작가는 말씀묵상 그림일기
「나에게 꼭 붙어있으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등을 출간했다.



영성과 지성을 갖춘 기독교 인재양성 75년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대광의 채플 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2학년 김○홍 학생의 채플피드백 중)”



성경연구센터에서 수업

대광은 ‘예배’와 ‘성경수업’을 랜드마크 삼아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를 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학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앙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가진 학생들을 교회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대광고등학교는 1947년 한경직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이후 이창로 장로님과 수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75년간 기독교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1,000여 명이 넘는 목회자와 800여 명이 넘는 의사및 의료선교사, 900여명이 넘는 교수 등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독교인재를 배출해왔습니다. 이는 대광의 기독교교육을 위해 설립 후 현재까지 기도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은 영락교회의 헌신과 철저한 기독교교육의 결과



신앙수련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광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펼쳐 놓으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지성적인(Academic) 영역의 교육 뿐 아니라 예술교육, 영성교육, 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을 통한 감성·창의성을 키우는 예술교육, 매주 수요일 전교생 채플과 매일 아침경건회, 모퉁이돌기도회, 성경교육 등을 통한 영성교육, DGGCP(DaeGwang Good Character Prize)와 국토순례, 캄보디아 봉사활동, 비전스쿨, 미국기독교학교 및 문화역사탐방, 유럽명문학교 및 종교개혁지 탐방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인성교육이 그것입니다.

특히, 매주 진행되는 학생 채플은 신앙을 가진 학생들에게 신앙 성장의 기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21

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렵게 진행되었던 학생 채플의 피드백들을 보면 대광의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돈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며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1학년 인○영). “기독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많아졌다. 솔직히 신이 있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었지만, 지금은 믿음으로써 나의 생각들과 감정들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믿음을 갖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2학년 강○식).” “원래는 하나님을 왜 믿고 예배를 하는 건지 잘 몰랐다. 근데 채플 시간마다 찬양도 듣고 함께 하다보니 왜 믿는지 이해가 간다(2학년 지○무).”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많은 인물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으



캄보디아 봉사

며 살아가고 싶다(3학년 이○일).”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실패를 겪어도 예수님이 내안에 계심을 믿고 실패를 거둬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서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는 대광인으로 거듭나야겠다(3학년 신○수).”라고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광의 중요한 기독교적 전인교육 중 하나는 생활관교육 (DICS-Diligence, Integrity, Cooperation, Service- Academy)입니다. 남자학교 최초로 시행하는 생활관 교육은 영성과 사회성, 예절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조리 이외의 모든 활동은 학생들이 맡아서 자율적으로 활동합니다.

시대에 뒤지지 않는 영성과 지성 교육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양성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첨단과학 트랙과 예술-스포츠과학 트랙이 있습니다. 첨단과학 트랙에서는 주니어 과학아카데미, 과제연구반(Open Lab), R&E(Reach & Education), 스크래치·파이썬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교육,

Project Euler,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ACP(앱개발), DGTP(게임화사고), 로봇아카데미, 드론교실, 실내 건축디자인과 3D 등 기초과학, IT소프트웨어, 건축, 기계, 로봇공학 영역을 가르치고 있으며, 예술·스포츠과학 트랙에서는 1인 1악기, 학부모 공개음악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연합음악회, 앙상블 수업, 미학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 학기에는 교내 성경연구센터(BRC)에 크리스천 제자훈련 아카데미(Christian Discipleship Academy)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보다 심화된 기독교교육을 원하는 학생과 미래에 목회자 혹은 신학자 등이 되고 싶은 학생에게는 방과 후 시간에 신-구약성경, 성경인물탐구, 라틴어, 고전 읽기, 성경적 영화보기, 예배자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기독교리더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독교교육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고난이 많고 위기가 있을 때 기독교는 더 많이 성숙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대광의 모든 교직원은 함께 기도하며 상황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대광에 맡겨 주신 기독교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만남**



우수호 목사
대광고등학교 교목실장

광야의 길을 인도해주신 ‘말씀대로 365’

한 해 동안 말씀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주님께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늘 스스로 물으며 산다고 했지만, 돌아보면 말씀과는 한참 먼 곳에 와 있는 나의 모습에 낙심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넓고 따뜻한 품에 안아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보다 겸손하고 따뜻한 지지자, 진정한 동반자, 신실한 상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가기를 소망해봅니다. **고운숙 은퇴권사(강서·구로·양천교구)**

위임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아름다운 하모니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광야 길을 인도해주셨습니다. 영락교회의 수만 성도가 말씀을 공급받으며 성장해가는 모습, 우리의 거대한 어깨동무, 상상만으로도 역동적인 은혜입니다. 매일아침 70여명에게 전달, 키르기스스탄 의료선교사 동생가족을 통해, 북한선교 청년들에게 다시 전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움직임을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신앙의 모범이셨던 아버지께서 평소에 보여주신 기도와 말씀의 모본인 ‘말씀 따라 성실하게’는 ‘말씀대로 365’와 똑같지요? 받은 복을 넘치게 흘러 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강물이 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김영미 권사(고양·파주교구)**



▲ 김철호 은퇴집사(김영미 권사 아버지) 묵상노트

365일 말씀묵상을 통해서 크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기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교회들, 믿음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노완희 은퇴권사(성동·광진교구)**

2021년 한 해 동안 ‘말씀대로 365’는 조용하지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북돋워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기다리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락미술인선교회는 말씀묵상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영락교회를 기도의 손으로 떠받치는 연합작품과 함께, 회원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는 작품들을 모아서 정기전을 가졌습니다. 우리교회에도 조만간 아름다운 상설 갤러리가 꼭 생겨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송경희 권사(서대문·은평교구)**

예배시간에 ‘말씀대로 365’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매일의 말씀묵상을 통해 기도시간이 쌓여갈수록 주님과 동행이 놀랍고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지 않으면 한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조차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는 심령으로 주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고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성진 성도(고양·파주교구)**

‘말씀대로 365’,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365일 내내 사랑으로 말씀을 전달해주시는 영락미술인선교회 신앙부장님덕분에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우고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위영혜 권사(서초교구)**

‘말씀대로 365’의 은혜로운 설교를 통해 매일 큰 안위를 받으며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게 더 재미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지요. 영락미술인선교회 단톡방에 신앙부장께서 ‘말씀대로 365’ 영상과, 매일아침 직접 쓴 한글성경과 영어성경말씀, 기도묵상을 함께 올려주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영어성경까지! 저는 영어성경에 눈이 멈추었지요. 모르는 영어단어의 뜻을 찾아가며 읽기가 힘들었지만, 찾는 과정이 은혜이더군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해가며 매일 빠짐없이 한글성경과 영어성경을 함께 통독할 수 있었습니다. **유순희 은퇴권사(강남교구)**

아침마다 카톡소리가 기다려지는 ‘말씀대로 365’. 말씀묵상을 통한 매일의 삶속에서 지나왔던 길과 지금 숨 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삶속에서 힘든 상황에 부딪칠 때면 너무 건디기가 힘들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묵상을 통해 감사할 수 있었고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 믿음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순영 성도(강북·도봉교구)**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대로 365'를 통해 하루를 열고 잠자리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참 자유와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용기로 무장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힘겨워 쓰러져있을 때에 주님께서 손 잡아 일으켜주셔서 끝내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위로받고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혜순 권사(강남교구)**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대로 365'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줄이었기에 힘껏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신·구약 66권의 주제와 개관, 시대적 배경을 파악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성경의 지명들이 익숙하고 친근한 지역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도를 찾아 검색하며 따라갔던 모세의 출애굽 행로, 예수님의 복음사역지, 사도바울의 선교여행지 등 성경속의 여행길에 동행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통독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장금숙 권사(서대문·은평교구)**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과 함께 365일을 동행하기 시작했지요. 되돌아보니, 혼자서하는 성경통독도 좋지만 전 교우들이 함께해서 보다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통독과 말씀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내 주변의 어수선했던 많은 문제들이 하나씩 정리되어가고 있습니다. 36년간 천주교신자로 살아온 저에겐 정말 특별한 경험의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최귀진 성도(용인·화성교구)**

말씀은 언제나 내 삶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크고 광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인물들의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씀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만남의 현장에서 분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공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행보와 사역,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만의 완전한 사랑의 모습에 얼마나 가슴 벅찰 때가 많았는지요. 통독을 마치며 다음 통독의 여정에서 만나게 될 주님을 기대합니다. **최진희 권사(서초교구)**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대형교회의 구조상, 아무리 갈급해도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인데 '말씀대로 365'를 통해 제대로 양육 받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으며, 경험해보지 못했던 말씀통독과 묵상, 기도생활을 체화하는 훈련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서하다보니 때로는 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는데, 전체교인들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면서 더욱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 새롭게 이어질 '영락 오이코스'를 기대해봅니다. **홍정임 권사(강북·도봉교구)**

잊고 있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지만 때로는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하며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하면 이전에 했었던 기도가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잊고 있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찬양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노래를 가르쳐주시면 신이 나서 그 누구보다 가장 크게 따라 불렀고, 유년부 시절부터 찬양대에서 자칭 에이스라 생각하면서 찬양했고 늘 찬양의 자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에서도 합창단과 중창단을 도맡아 했고 여러 대회에서 상도 많이 탔습

니다. 그래서 소년은 음악이 참 좋았고 매년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적을 때면 ‘음악가’라고 당당히 적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 이

것저것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만 뭐든지 이삼 년 배우고 흥미를 잃어 그만뒀기 때문에 딱히 제대로 할 줄 아는 악기가 없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기억은 좋았었지만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적 없었던 그 소년은 그렇게 어영부영하다가 중학생이 되었고,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 공부만 하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음악가가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을 볼 줄 아는 나이가 되니 장래 희망을 적을 때 ‘음악가’라고 적기가 민망해졌습니다. 돌아보면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음악을 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뭐라도 배워야 했고 아니면 얼른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다른 진로를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자신이 왜 음악가가 되고 싶어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돌아보니 어려서부터 찬양을 통해서 음악을 접해왔고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더욱 아름답게 부르기 위해 성악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했지만,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 교회 여름 수련회 둘째 날 저녁 기도회 시간이었습니다. 중·고등부 목사님께서 기



남경식 전도사
중구·용산교구
전도부

도회 인도를 하시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고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모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뻘 되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주시는데 그 소년도 선생님들의 기도 소리에 감동되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눈물 콧물을 한 바가지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이 그러하듯이 소년 또한 수련회에서의 감동을 집에 돌아오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소년은 그가 드렸던 간절한 기도를 모두 잊어버리고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 앞에 주어진 일들에 집중하며 살아갔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듣고 와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교회에 가서 대학 입시 곡을 연습하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 중에 찬양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는 등 마는 등 얼른 해치우듯 다녀와서는 여느 수험생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년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의 삶에 매 순간 함께하시며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소년은 신학대학교에서 교회음악 성악을 전공하게 되고, 학교에서 찬양 선교단을 섬기면서 방학마다 매번 국내외로 찬양 선교를 다니면서 어디에서든지 찬양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언제나 찬양 자리에 있었으며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하



나님께서는 그 소년을 찬양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길이 자신의 선택인 줄 알았지만 되돌아보니 그동안 걸어온 발걸음 발걸음이 이전에 주님께 기도했던,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지나온 모든 과정에 함께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어린 시절 감정에 휩쓸려서 드린 기도라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올려드린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셨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훗날에 돌아보면 주님께서 응답하신 손길이 있었노라고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소년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전도사의 자리로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여전히 찬양합니다. **만남**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잠언 21:5)

돈을 저축하고 투자함에 있어 조급하게 빨리 불리려고 하면 오히려 궁핍함에 이르는 난처한 처지를 만나게 됩니다. 저축이나 투자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돈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과도 분리되는 딱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경험 많으신 어른들은 “교인들끼리는 서로 투자도 하지 말고 돈도 빌려주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은행 이자가 너무도 낮은 현실에서,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소개하거나, 본인이 수익률이 좋은 곳이 있어 투자하려고 하는 데 투자금이 생기는 시기가 좀 늦어져 그때까지만 높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이 흔들리고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고 듣습니다.



박이달 집사
사랑의교회
회계사

1. 우리는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나?

하나님은 믿음의 영웅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욥과 같은 분들을 세상적으로도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사는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며, 신실한 믿음의 삶에서 얻은 열매라면 세상의 부를 갖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부를 얻는 데는 조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사탄이 심어 놓는 교만과 탐욕, 염려가 숨어듭니다. 염려는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시기가 올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병적인 동기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믿음은 바닥을 드러내고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디모데전서 6:9)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는 언제나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 ② 우리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좋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 마음껏 쓰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꿈틀댁니다.
- ③ 부자가 되면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하며, 돈을 마음껏 사용하므로 능력 있는 자로 보이거나 세상의 존경을 받고 남보다 위에 있다는 느낌으로 으스스대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부하려 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11~12)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맡기신 축복의 재물을 잘 관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에 동참하여 영생을 누리며 기뻐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동기로 '저축과 투자'하기를 원하실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디모데전서 5:8)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신명기 14:28~29 전)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창세기 41:34~36)

저축과 투자의 동기는 1) 자기 가족과 친족을 보살피기 위함이고 2)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거나 하나님의 일을 후원(교회나 선교사역 후원)하는 용처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3) 사업/투자가 잘되어 많은 이익이 발생할 때 사업체의 계속적 담보 또는 공동체 안정을 위해 일부를 비축하는 것이 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3. 하나님은 저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축을 습관화하도록 명하십니다. 사업이 흥왕하여 풍성할 때 요셉이 그 해 소산의 오분의 일(20%)을 비축하는 것(창세기 41:34~36)과 같이 상당 부분을 저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도 ‘미련한 자는 다 삼켜 버리나 지혜 있는 자는 보배와 기름을 비축한다(잠언 21:20)’라는 말씀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재미(잠언 30:25)’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모든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누가복음 12:16~18)는 어리석은 자(누가복음 12:20)로 판단하시며 비축과 드리는 것 간에 균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누가복음 12:34). 우리는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저축(비축)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후한 마음으로 드림(나눔)으로써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수입이 적은 데 무슨 여유로 저축하나?

즉시 저축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십시오. 저축 후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자기 생각에 조금밖에 남지 않아도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을 많은 분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있어도 저축을 해야 합니다. 적은 돈을 저축해 목돈을 만들어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을 통해 저축의 유익을 체험하십시오. 저축은 채워짐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5. 성경적 투자 원칙은 무엇일까?

1) 위험한 투자를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한 투자를 피하라고 경고하시지만(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전도서 5:14)), 많은 그리스도인이 종교가 같거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너무 쉽게 믿기 때문에 남에게 잘 속거나 특히 사기를 잘 당합니다.

위험한 투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 ①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 ② 투자 결정을 빨리하라고 합니다. 늦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간다고 재촉합니다.
- ③ 돈을 잃을 위험(투자위험)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고 투자자의 수고가 거의 없다고 유혹합니다.

이렇게 좋은 투자면 본인이 집을 팔아서라도 투자하지 타인에게 기회를 제공할 리 만무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 분산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라도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전도서 11:2)

세상에 완벽한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 교만하지 마십시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성공적인 투자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디모데전서 6:17)

2) 재산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6:17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가진 돈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은 건강과 마찬가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잃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3) 후히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후하게 나눠주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3)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돈뿐 아니라 시간, 노력 때로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라도 잘못하면 투자 후에는 주님보다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쉽습니다(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출애굽기 20:3)).

4) 기도로 주님의 타이밍에 의탁하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전도서 3:1)

투자 상품의 매수와 매도 시기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데 우리는 장래의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 없으므로 겸손하게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디모데전서 6:18~19) **만남**

* 청지기 성경적 재정교육 교재 7주 차 저축과 투자의 요약내용입니다.

6. 투자에 성공하고 난 후 우리의 자세

우리의 자산이 늘어날수록 그 늘어난 자산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맞는 좋은 안경 고르기



해마다 봄이 오면 노랗게 피어나는 개나리 군락과 진홍빛 진달래, 벚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봄꽃 명소들을 볼 생각에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그뿐 인가요, 사계절 내내 수평선까지 새파란 강릉 앞바다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백두대간의 산봉우리들, 아름다운 자연의 향연에 넋을 잃고 보다보면 이러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아무런 대가 없이 마음껏 볼 수 있게 해주는 나의 눈에도 고마움을 표하게 되지요.

안경은 이러한 본다는 즐거움을 그대로 느낄 수 없는, 굴절이상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보조하여, 보다 나은 시(視)생활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안경을 모자나 목걸이처럼 이미지 메이킹 아이템으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경이 사람

의 인상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맞는 말이지만 사실 안경은 얼굴에 쓸 때부터 빛을 굴절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하며, 망막에 초점을 맞추어주고 자외선과 같은 유해광선을 차단하여서 눈을 보호해주는 의료가기입니다. 때문에 잘못된 안경은 눈의 피로를 발생시키고, 시력 악화, 사위(斜位) 등의 시(視)기능 이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을 보호하는 좋은 안경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1) 안경테 올바르게 선택하기

안경은 안경프레임(안경테)과 시력교정용 광학렌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경테와 렌즈를 별도로 선택하여 안경원에서 조제하게 됩니다. 안경테를 고를 때는 사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장입되는 렌즈에 영향을 미쳐 눈의 건강을 좌우

하기 때문이지요. 보통은 모양과 색상에만 치우쳐 고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경테의 크기가 내 얼굴 가로 폭과 세로 폭 크기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내림이나 눈과 렌즈와의 거리, 얼굴과 렌즈가 이루는 각도 등이 조제할 때와 다르게 변형되어 안경 도수에 수차(흐림과 왜곡 정도)와 프리즘을 발생시켜 결국 눈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경테를 얼굴에 썼을 때 양쪽 다리가 관자놀이 부위를 누르지 않도록 폭이 여유가 있어야 하고, 다리의 끝이 귀를 지나 충분히 여유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양쪽 귀의 높이가 다르게 착용했을 때 안경이 기울어지는데, 안경테가 피팅(fitting, 열과 가압으로 테의 형상을 소성 변형시키는 것)으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테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안경테의 형상도 중요합니다. 안면각(전면부의 휘어짐 정도, 그림 1)과 경사각(얼굴 수평면과 렌즈면이 이루는 각도, 그림 2)이 심하거나 경사각이 너무 적으면 정상적으로 렌즈를 장입해도 렌즈 주변부에 수차가 심하게 발생하여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어, 안경 적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면각은 5° 이내, 경사각은 5°~10° 정도의 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경테는 TR, 울템, 아세테이트 등으로 알려진 플라스틱 재질과 금속 재질이 있습니다. TR과 울템은 가볍고 저렴한 장점이 있고, 아세테이트 계열은 화려한 색상과 광택, 고품위로 상대적으로 고가 계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속계열은 최근에 가늘어진 디자인으로 가벼운 착용감이 장점이지만, 고도수의 경우 렌즈 장입 시 무게중심이 앞부분으로 치중되면서 흘러내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리부에 무게감이 있는 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계열에 피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나 니켈성분이 없는 티탄계열의 재질을 선택하시면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2) 안경렌즈 올바르게 선택하기

흔히 ‘두 번 압축’, ‘세 번 압축 렌즈’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압축 렌즈’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히 구분하자면 1.5, 1.56, 1.60, 1.67, 1.74, 1.76 과 같이 6등급의 지수(index level)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이 숫자는 각기 다른 렌즈 재질의 굴절률(refractive index, 빛이 렌즈를 투과할 때 꺾이는 정도)을 나타냅니다. 고도수의 경우 굴절률이 높을수록 렌즈의 두께와 무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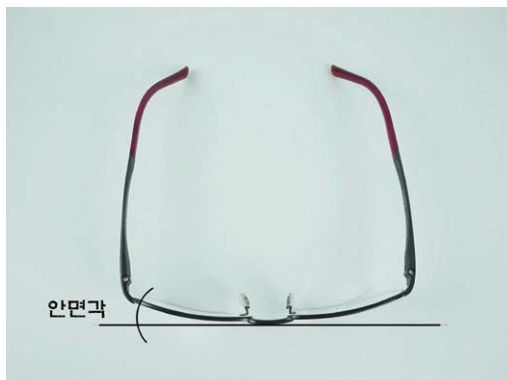


그림 1. 안면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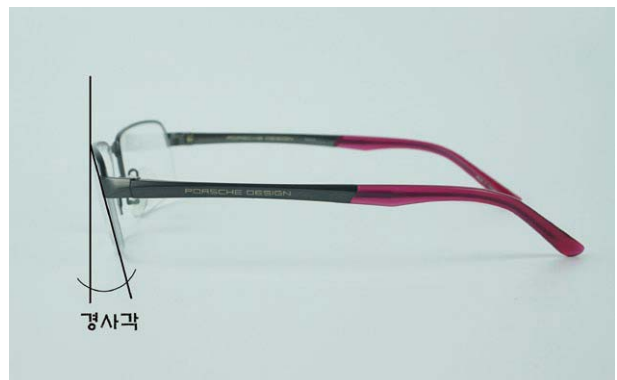


그림 2. 경사각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경에 사용된 렌즈의 굴절률을 기억해 둔다면 어디서든 같은 등급의 렌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렌즈는 앞면과 뒷면을 포함한 둥그런 커브 형태를 가집니다. 이런 형상의 렌즈를 ‘구면 렌즈’라고 하고 수차를 줄이기 위해 한쪽 면을 타원형으로 편평하게 가공한 렌즈를 ‘단면 비구면’, 양쪽 면을 가공한 것을 ‘양면 비구면’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면 < 단면비구면 < 양면비구면’의 순서로 수차를 줄여주어 편안한 시야를 제공해 줍니다. 다만 굴절이상의 정도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렌즈에 옵션 추가하기

- 자외선, 청광, 근적외선 차단

시력교정용 광학렌즈는 플라스틱 생지로 도수 가공을 한 후에 표면 보호, 빛 간섭방지 등을 위하여 표면에 겹겹으로 코팅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유해광선인 자외선 차단, 유해 청광 차단, 근적외선 차단 등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스크래치 방지 등을 위해 표면강도와 경도를 강화시키는 선택적 옵션을 추가하여 렌즈의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고르실 때는 렌즈의 자외선 차단율과 렌즈 색 농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색 농도가 진할 경우(농도 80%이상) 안압을 상승시켜 두통과 피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안경을 썼을 때 눈이 환하게 보일 정도인 50%~70%의 농도를 고르는 것이 눈 건강에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률은 꼭 확인하셔야 하며, 불량렌즈는 동공을 산동시켜서 자외선에 의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피팅

안경을 자신의 얼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안경 피팅(fitting)이라 합니다. 알맞은 안경테와 적절한 렌즈로 조제된 안경도 피팅이 잘못되면 시력 교정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좌우 치우침은 없는지, 너무 헐겁거나 조임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피팅을 섬세하게 받아야합니다. 적절한 피팅으로 얼굴에 편안하게 맞추어진 안경이 바로 좋은 안경입니다.

(5) 안경 올바르게 사용하기

안경의 잘못된 사용으로 렌즈가 손상되거나 테가 변형되어도 시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경은 두 손으로 쓰고 벗는 습관을 들여 테의 변형을 예방하고, 열에 약한 렌즈의 코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우나 등 열탕 출입 시에 반드시 벗어야 하며, 바비큐 요리 등 직화 요리 시에도 화기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오물과 먼지가 심하게 묻었을 때는 주방에서 사용하시는 중성세제와 찬물로 닦아 행구어내면 세척과 함께 테와 렌즈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잘 조제된 안경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눈도 편안해지며 안경의 수명도 길어집니다.

이제 곧 개나리, 진달래가 봄소식을 전해주겠지요? 좋은 안경, 선글라스를 바르게 사용해서 꽃들이 만개한 아름다운 세상 맘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만남**



김정훈 집사
성남·분당교구
안경원 원장

영광과 찬양을 올리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찬양대 대장 심규주 장로, 총무 이승우 집사



〈임마누엘찬양대〉라는 이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연상되는 것은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열리는 그 시각, 첫 예배의 선포입니다.

1946년 베다니찬양대가 발족한 것을 모태로 시온과 호산나찬양대가 태어났고, 1967년 9월에 네 번째로 임마누엘찬양대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락교회 1부 예배의 찬양사역을 담당해온 임마누엘찬양대는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날, 임마누엘찬양대원들은 새벽을 가르며 교회로 나옵니다. 아침 6시부터 준비하는 찬양의 걸음걸음 그 역사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매 순

간마다 늘 있었습니다. 덕분에 임마누엘찬양대는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리고 있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1967년 9월 3일, 1부 임마누엘찬양대는 아더S. 설리반의 “사망의 골짜기로 늘 다녀도”(지휘 윤치호 집사/초대지휘자)로 첫 찬양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교회 대면예배와 행사가 어려움을 겪기 바로 직전, 2020년 11월 29일 75주년 영락교회 창립예배 기념연주까지 임마누엘찬양대는 지난 54년 동안 크고 작은 연주를 82회 진행했습니다.

55세 장년이 된 임마누엘찬양대는 2021년 제55대 대장 심규주 장로가 부임했고, 현재 지휘자 최상규 안수집사(1994년 부임), 오르가니스트 박소현 집사(2006년 부임), 총무 이승우 집사를 비롯한 임원 외 120여 명의 대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내에는 하멜(하늘의 멜로디, 여성), A-men(남성), 하나싱어즈(혼성) 등 3개 중창단이 있어, 봉헌송과 외부 찬양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노석주 집사님의 후원으로 마련된 CC핸드벨콰이어(CC는 하늘의 종소리를 의미)를 통해 찬양의 선율을 더 풍부하고 아름답고 다채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 집사님은 최근 팀파니를 후원해 주셔서 교회 음악회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찬양대는 예배 뿐 아니라 외부 찬양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만 해도 젊은 장병을 향한 영월지역 군부대 및 군민회관 순회연주(2003. 5.17~18), 미주순회연주(2004. 6.23~7.3) 춘천중앙감리교회와 102보충대 연주(2013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바탐 순회연주

(2016. 8. 12~18) 등 다양한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영월과 춘천에서 전한 선율의 메시지는 미자립교회와 군복음화 선교에 큰 자극을 주었고, 특별히 젊은 장병들이 귀한 시기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탐 순회연주는 우리 교회 비전트립에 참가했다가 이곳에서 하늘로 떠난 중등부 학생을 추모해 그 이름을 딴 진송학교(교회)에서 열려 더욱 뜻 깊었습니다.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그 땅의 문화 속에서, 또 우리 교회 비전트립에 참가했던 중등부 학생을 기념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음악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찬양대는 선교의 전초부대 역할을 한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임마누엘찬양대는 매주 목요일 7시, 주일 새벽 6시의 연습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들이 때로는 버거웠던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1974년 한경직·박조준 목사와 윤치호 당시 지휘자(앞줄 오른쪽 2번째) 모습이 보인다.

■ 연도별 주요연주

1967년~1982년	1983년~1998년	1999년~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9.3. 천 찬양곡 봉헌 - 75. 한국일보 주최 베토벤 “환희의 송가” 연주 (시민회관) - 82.12. 기독교방송국 개국 28주년 기념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3.1. 제1회 소음악회 개최 - 83.2. 새문안교회 교향성가 - 83.4. 기독교방송국 〈천지창조〉출연 - 95.2. 신춘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12. KBS성탄특별음악회 - 04.6~7 미주 순회연주 - 16.8. 싱가포르, 바탐 순회연주 - 17.9. 임마누엘 50주년 기념음악회 - 18.12. 제3회 IEF 핸드벨스페셜

임마누엘찬양대의 동력임을 고백합니다.

지휘자 최상규 안수집사는 “우리 임마누엘찬양대는 모든 세대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지혜와 평강의 의미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임마누엘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르가니스트 박소현 집사님은 “임마누엘찬양대가 작은 교회와 같다”며 “40년, 30년, 20년 봉사하며 지키는 분들의 삶에 대한 자세와 신앙에 존경심이 든다”고 했

습니다. 대장으로, 총무로 섬기면서 저희는 임마누엘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젊은 대원이 들어와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신앙공동체 생활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와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찬양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을 다짐하며 이를 위해 계속 경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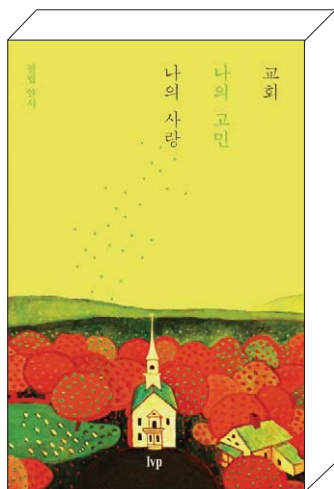


GPIB교회 공연후 기념촬영



미국순회연주를 보도한 <강로신문>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필립 안시 지음 / 윤종석 옮김 / IVP/2019년

성도님들과 함께 읽을만한 책을 소개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도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 복음주의 작가 필립 안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책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책은 교회에 대한 저자의 솔직한 고백록에 가깝습니다. 저자 자신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지역 교회에 몸 담고 신앙생활 하던 중에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통해 교회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 받은 이야기, 다른 교인으로 인해 시험에 든 이야기, 교회를 떠나고 다시 돌아오게 된 이야기, 교회 공동체가 감당하기 버거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등등. 교인이라면 누

구라도 한번 쯤 고민해 보았을 실제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한 이 책은, 읽는 내내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저자의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필립 안시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 되는 이야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왜 여전히 이 미완성의 불완전한 교회를 사랑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매우 특별한 공동체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지에 대하여 이야기 합니다. 책 제목처럼 교회는 고민인 동시에 그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완벽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하여 고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가야 하는 올바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회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우리 영락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기를 소망하며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책 속의 한 문장을 소개하며 글을 마칩니다.

“모든 교회가 이상을 겨냥하지만 모든 교회가 과녁을 빗나간다. 그래도 적어도 이상이 있으면 무엇을 겨냥해야 할지 알 수 있다.” **만남**



탁현수 목사
성동·광진교구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대학부

명령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여 무릎 꿇고 통회하며 겸손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여, 머뭇거리지 않고 앞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며 인도하시니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서로를 일으키고 붙들어주며 조용히, 그리고 힘차게 전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만남**

행진하여가라

이천이십이년 영락교회표어 온산  

고윤숙 은퇴권사 _ 강서·구로·양천교구

선교부 베트남 창립 예배

2022년 1월 2일(주일) 한국체류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베트남 예배 창립예배를 드렸다. 베트남 유학생의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지난 1년간 <비나영락한글문화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창립예배를 준비해 왔다. 예배담당 교육전도사 투언은 베트남 파송 고재영 선교사의 현지 제자훈련센터를 수료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 재학중이다. 지금까지 선교부(부장 심재수 장로)는 영락교회 해외 파송선교사 지원을 해외 선교의 중심축으로 추진해왔다. 이제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약 250만 명 시대를 맞이하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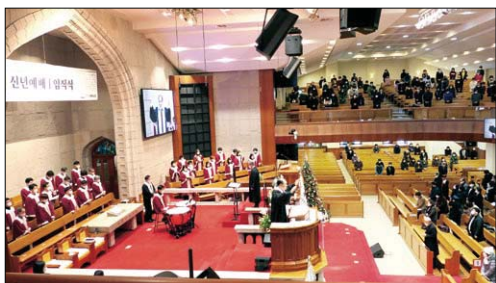
이것은 새로운 시대 변화의 중요한 선교현장으로 주목하고 있다. 선교부의 해외선교정책 중 우선 베트남 유학생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타 해외파송 선교지역의 창립예배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공 선교부 외국인예배팀

교회소식

news letter

신년예배, 임직식 겸해 드려 - '한 해 구원 받은 자녀로서 삶으로 채워가길'



2022년 새해 표어 '행진하여 가라(신명기1:6~8)' 아래 새해 첫 날, 첫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본당에서 열린 신년예배는 1부(오전 9시 30분), 2부(오전 11시 30분) 모두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신년 설교로 '시작이 되게 하고(출애굽기 12:1~2)' 제하의 말씀을 전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한 해의 출발점에서, 우리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적 정체성을 갖고 주님 바라보며 말길 때 신령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선포했다.

2부 신년예배에 이어 진행된 임직식에서는 신임 권사 63명, 신임 남집사 37명, 신임 여집사 67명, 구역장 1,081명, 교사 845명, 찬양대원 1,042명 중 참석한 직분자들은 기립하여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성도들의 격려 박수를 받았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신년기도회 <행진하여 가라>

2022년 신년기도회가 '행진하여 가라(신명기 1:6~8)'라는 주제로 1월 3일(월)부터 5일(수)까지 2박 3일 동안 본당에서 열렸다. 3일 저녁예배를 시작으로 4, 5일 새벽 6시,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이어지며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중계되었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첫날 저녁 '다시 벨엘에서'를 시작으로 저녁 예배에서 '어떤 아버지인가', '여전히 계속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전하였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행진하여 나가기로 결단하며, 세계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영락교회,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다.

취재 유혜정 편집위원 사진 원종석 기자

사회봉사부 <사랑의 김치나누기> 행사 펼쳐



사회봉사부(부장 이흥로 장로)는 2021년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13일(월) 교회 마당에서 사랑의 김치 전달식을 가지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나눈 김치는 ‘더 평양김치’라는 이름으로 탈북민들이 세운 김치공장에서 만든 김

치로, 소외된 이웃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훈훈한 나눔에 의미가 더 깊었다.

김치는 3Kg과 5kg 두종류 2,000만 원 상당으로 중구 관내를 중심으로 인근 종로구 등 지역의 지원기관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위로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흥로 장로는 “코로나와 겨울 추위로 마음까지 얼어붙어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 도움의 손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 소외계층에게 나누어 큰 힘과 용기가 되고, 외롭게 생활하는 독거노인, 결손가정 등에 전해져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다일공동체에 제빵 기계 장비 일체 지원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 이브인 12월 24일 새벽,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대표 최일도 목사)가 주관하여 청량리 쌍굴다리 밑에서 거리성탄예배가 열렸다. 이날 추위와 가난으로 매일 고단한 삶을 사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이 모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예배에 우리 교회 김운성 목사가 ‘우리를 위해 나셨다’를 주제로 성탄메시지를 전하며 “오늘 눈에 보이는 성탄선물도 받아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들이아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 교회는 다일공동체 초창기 33년 전 ‘밥퍼’나눔을 시작할 당시부터 예배장소 등을 지원하며 사역을 후원해 왔는데 코로나로 ‘밥퍼’사역이 어려워지자 새롭게 준비하게 된 ‘빵퍼’사역을 위한 제빵 기계 장비 구입비 8,580만원 일



체를 후원하며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이 제빵기계는 5,000개의 빵을 한번에 구울 수 있어 ‘빵퍼’사역으로 하루 5,000개의 빵을 구워 2,500개는 이웃들과 나누고, 나머지 2,500개는 판매해 수익금으로 무의탁 노인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이성환 안수집사

“각 다른 지체의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자”

- 여전도회 헌신예배



여전도회 헌신예배가 지난 1월 16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드러졌다. 예배는 제1~4여전도회 증경회장단 및 임원, 실행위원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참석한 가운데 황숙희 권사(제1여전도회장)의 인도로 박옥경 권사(제2여전

도회장)의 기도, 석소연 집사(제4여전도회장)의 성경봉독, 갈릴리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초청 강사인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은퇴)는 ‘둘 다 필요합니다(누가복음 10:38~42)’의 제목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인을 겸비한 믿음의 현숙한 여인으로서 기쁨으로 섬기는 여전도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선교사역에 쓰일 봉헌의 시간에는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의 봉헌송과 정해옥 권사(제3여전도회장)의 봉헌기도, 이어 지난해 제1~4여전도회 각 선교사역 활동을 담은 영상 관람 후, 선교적 사명에 헌신을 다짐하며 여전도회가를 부른 후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 성탄에 재조명받은 오창학 원로목사

코로나로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하는 삶이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유튜브 노승현TV가 성탄특집으로 방송한

오창학 신촌교회 원로목사 인터뷰(https://www.youtube.com/watch?v=_k331oylePY)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오 목사는 2009년 목회 사역 42년을 마치고 은퇴하면서 퇴직금과 당시 거주하던 사택(아파트) 소유권을 교회에 봉헌했다. 오 목사는 영락교회에서 10년간 부목사로 일한 뒤 신촌교회로 가면서 받은 퇴직금을 모두 고아원·양로원 등 복지법인에 전액 기부했고, 군 제대할 때도 받은 돈으로 시골교회 지분을 갈아드리고 나왔다. 오 목사는 이처럼 평생 4번의 퇴직을 했고 그때마다 퇴직금을 모두 교회에 드렸다.

인터뷰에서 오 목사는 은퇴 후에도 새벽기도와 일기쓰기를 지금껏 계속해서 영적 유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라며 “오 목사는 “전대미문의 비대면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데,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권면했다.

취재 인미 편집위원



김귀열 은퇴장로 <HDI 인간경영대상> 수상



(주)슈페리어 회장 김귀열 은퇴장로(강남교구)가 인간개발연구원(HDI) 주관 제7회 <HDI인간경영대상> 사회공헌 부문을 수상했다. HDI인간경영대상은 인간 중심 경영 철학을 실천하는 우수기업 경영자를 선정하여 매년 수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지난해 12월 21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렸다(사진 앞줄 오른쪽이 김귀열 은퇴장로).

김귀열 은퇴장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선교와 봉사의 설립 이념을 갖고 슈페리어 재단을 설립하여 환경직 기념사업과 선교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2014년 시작된 환경직 목사 기념상은 2018년 슈페리어재단 대상으로 이름을 바꾸어 '선교, 봉사, 교육, 애국' 등 기독교 정신을 실천한 인물들에게 지속적으로 시상하고 있다.

김의환 은퇴장로, 서울노회에서 공로패 수여

김의환 은퇴장로(서초교구)가 <서울노회 테니스회>를 기독교적 리더십으로 섬겨온 공로로 지난해 12월 서울노회 공로패를 받았다.

김 은퇴장로는 서울노회 테니스회 창설 회장으로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화합에 크게 기여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전하고 적절한 활동으로 회원 간의 친교를 강화함으로 산하 모든 기관 단체에 모범을 보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2년 선교부 자치단체장

제1남선교회 안태운 장로
제2남선교회 목홍균 안수집사
제3남선교회 조원형 집사
제4남선교회 유호근 집사
청년선교회 하진희 집사

제1여전도회 황숙희 권사
제2여전도회 박옥경 권사
제3여전도회 정해옥 권사
제4여전도회 석소연 집사
부부선교회 이하나 집사

2022년 목회 분담표(목사)



백성우 목사
교육 전담
선임, 교육부 총괄
교사교육부, 교회교육원



김태군 목사
13교구(서초)
경조부



최승도 목사
4교구(중구·용산)
제자양육훈련부 총괄
한경직기념사업회, 역사위원회



김정희 목사
15교구(성남·분당)
목회행정



박지운 목사
16교구(고양·파주)
목양부, 권사회



최한운 목사
6교구(강서·구로·양천)
예배부, 음악부, 안수집사회



박성은 목사
선교 전담
선교부(국내, 해외)
1남선교회/1여전도회



김중섭 목사
2교구(강동·송파)
제자양육훈련부, 시온찬양대



남정열 목사
10교구(종로·성북)
IT미디어부, 홍보출판부
베들레헴찬양대



권혁일 목사
5교구(관악·동작·금천)
영성, 영락수련원
영락기도대, 갈릴리찬양대



김형찬 목사
18교구(용인·화성)
새가족부, 베다니찬양대



조두형 목사
8교구(동대문·충량)
선교부(군선교, 문화, 청년),
2남선교회/2여전도회



전병주 목사
11교구(노원)
사회봉사부, 친교부
평생대학, 사회복지재단



노대웅 목사
고등부
학원선교



최재선 목사
청년부
자원봉사부



강승훈 목사
12교구(강북·도봉)
상담부, 가정사역



탁현수 목사
3교구(성동·광진)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대학부



김진우 목사
17교구(안양·수원)
북한선교부, 자유인예배,
할렐루야찬양대



이후림 목사
14교구(인천)
전도부 총괄, 호산나찬양대



이창조 목사
1교구(강남)
목양부(제직교육, 교재), 갈보리찬양대,
4부예배 찬양인도



오병훈 목사
9교구(마포·영등포)
선교부(농어촌, 의료, 부부),
3남선교회/3여전도회



박용준 목사
7교구(서대문·은평)
전도부(주중사역)
4남선교회/4여전도회, 임마누엘찬양대



이영호 목사
중등부



신주현 목사
아동부



홍지연 목사
영·유아·유치부



김윤기 목사
국제예배부



황재영 목사
영락기도원



신대군 목사
영락수련원



박상엽 목사
설악수양관



현성인 목사
IT미디어부

2022년 신임교역자 프로필

부목사



이창조

1교구(강남)
목양부(제직교육, 교재)
갈보리, 4부예배 인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장신대 신대원 신학
치유하는교회(목회행정, 청년교구)



오병훈

9교구(마포·영등포)
선교부(농어촌, 의료, 부부)
3남선교회/3여전교회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장신대 신대원 신학
19~21 복원교회(청년부 총괄)



박용준

7교구(서대문·은평)
전도부(주중사역)
4남선교회/4여전교회, 임마누엘
고신대 식품영양학과
장신대 신대원 신학
동안교회(교구, 중보기도, 가정사역,
청춘교실)

전임전도사



김소세

서초교구 | 목양부
장신대 신학
장신대 신대원
동부광성교회 교육전도사(대학부)



이성재

강북·도봉교구 | 청년부
장신대 기독교교육
장신대 신대원
영락교회 준전임전도사
(유년부, 토요제자학교)



김지용

교육부, 청년부
키르기스스탄 국립음대 성악
장신대 신대원
당일교회 교육전도사
(소년부)



박명일

종로·성북교구 | 예배위원회(4부), 평생대학
장신대 교회음악
장신대 신대원
미광교회 교육전도사
(중고등부, 예배음악총괄)
삼위일체교회 교육전도사
(중고등부, 예배음악총괄)



김하현

노원교구 | 상담부
장신대 신학
장신대 신대원
동안교회 준전임전도사(유년부)



정창대

용인·화성교구 | 고등부
한동대 법학
장신대 신대원
영락교회 준전임전도사(고등부)



박소망

강서·구로·양천교구 |
선교부(해외), 학원선교
서울장신대 사회복지
장신대 신대원
온누리교회 교육전도사(중등부)



최원석

관악·동작·금천교구 |
제자양육훈련부, 전도부(직장인예배)
한남대 기독교학
장신대 신대원
목민교회 교육전도사(중등부)



박찬양

강동·송파교구 | 영락수련원
서울장신대 신학
장신대 신대원
평지교회 전도사(주일예배,
수요예배)



김하영

선교부
장신대 기독교교육
장신대 신대원
영락교회 교육전도사(초등부)



한영훈

인천교구 | 예배위원회(기도)
한남대 독일어문학
장신대 신대원
장신대 대학원 예배설교학
청주상당교회 교육전도사(소년부)



전찬욱

대학부
한일장신대 신학
장신대 신대원
영락교회 준전임전도사(대학부)



박화목

안양·수원교구 |
사회봉사부, 선교부(문화)
장신대 기독교교육
장신대 신대원
신광교회 교육전도사(아동부)

2022년 제직회



서기 김호진 안수집사



부서기 허유인 권사

2022년 제직부서 신임 차장(안수집사 및 권사)

북한선교부



김건철



김재연

의료선교부



홍석훈

사회봉사부



오영철

목양부



이일호

전도부



조성권



김금성

제자양육훈련부



정광훈

새가족부



김승덕



김병기

음악부



김창섭

친교부



최성문



김봉희

상담부



고두선

경조부



이성두

홍보출판부



김재원

IT미디어부



강효식



황문선

재정부



오현택



민병준

시설관리부



최은오

자원봉사부



박진배



송정석

서무부



김경긴

예산위원회



한덕호




감사위원회



송영백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믿음 소망 사랑의 값

   는 각각 한자리 숫자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식을 유추하여 빈자리에 들어갈 답을 맞춰보세요.

$$\text{사랑} + \text{사랑} + \text{사랑} + \text{사랑} = 28$$

$$\text{소망} + \text{소망} + \text{사랑} + \text{소망} = 25$$

$$\text{믿음} + \text{소망} + \text{사랑} + \text{믿음} = 23$$

$$\text{소망} + \text{믿음} + (\text{사랑} \times \text{소망}) = \boxed{?}$$

2월 목회력

5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6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13일(주일)	제직회
14일(월)~16일(수)	포이메네스 목회자영성수련
20일(주일)	제직부흥회, 심방준비회 상담부 공개강좌(상반기)
21일(월)~26일(토)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
26일(토)~27일(주일)	아동부 봄맞이성경학교
27일(주일)	사회봉사주일, 신임권사 임직 및 헌신예배

※ 2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운재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거울그림찾기



2022년 2월호 통권 576호

발행 2022. 2.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양지청

편집위원 차영수 김갑수 김경옥 김효진
나광호 박선이 유혜정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교열 계영희 이광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www.youngnakmn.net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앱
안드로이드용



월간「만남」앱
아이폰용

2022년 교역자 목회분담표

■: 목사 □: 전도사 ●: 파트목사 ◎: 준전임 전도사 ○: 파트전도사

예배	예배위원회	■ 최한운 ■ 이창조(4부)	■ 권혁일(기도) □ 박명일(4부)	□ 권영현	□ 한영훈(기도)
	음악부	■ 최한운	□ 김재훈(한마음찬양반)		
	금요찬양팀	□ 남경식	□ 전재량	국제예배	■ 김윤기 ◎ 최성은 ◎ 변성국
교육	교육부	■ 백성우	□ 김지용	사랑부	● 진영채 ○ 이창근
	영·유아·유치부	■ 홍지연(유치부) ○ 강베나(유아부)	◎ 문주희(영아부) ○ 이사라(영아부)	◎ 권희주(유아부) ○ 윤혜은(유치부)	
	아동부(CebC)	■ 신주현(소년부) ○ 윤화평(소년부)	◎ 김요한(초등부) ○ 이빛나(유년부)	◎ 하종찬(유년부) ○ 김혜민(초등부)	○ 김지용(CebC)
	중등부	■ 이영호	□ 곽영진	◎ 황하은	○ 강하림
	고등부	■ 노대웅	□ 정창대	◎ 심현석	○ 김진재
	대학부(베드로부)	■ 탁현수	□ 전찬욱	□ 전재량	◎ 장대성 ○ 강우주
	청년부	■ 최재선	□ 김지용	□ 이성재	◎ 최예녹 ○ 홍수미
	교회교육원	■ 백성우	◎ 양동욱	교사교육부	■ 백성우 ◎ 양동욱
	목양부	■ 박지운	■ 이창조	□ 김재훈	□ 김모세
	제자양육훈련부	■ 최승도	■ 김충섭	■ 탁현수(소그룹)	□ 박성민(소그룹) □ 최원석
교구목양	새가족부	■ 김형찬	□ 장민희		
	전도부	■ 이후림	■ 박용준(주중사역)	□ 남경식	□ 최원석(직장인예배)
	경조부	■ 김태균		친교부	■ 전병주
	평생대학	■ 전병주	□ 박명일	상담부	■ 강승훈 □ 김하현 ◎ 이영미
	영락기도원	■ 황재영		설악산수양관	■ 박상엽
	영락수련원	■ 권혁일	■ 신대균	□ 박찬양	
	선교부	■ 박성은(국내, 해외) □ 김하영	■ 조두형(군선교, 문화, 청년) □ 전재량(미디어)	□ 박소망(해외)	■ 오병훈(농어촌, 부부) □ 박화목(문화)
선교	의료선교부	■ 오병훈			
	북한선교부	■ 김진우	□ 윤연상	◎ 구요섭	○ 김세훈
	학원선교	■ 노대웅	□ 박소망		
	1남선교회 1여전도회	■ 박성은		3남선교회 3여전도회	■ 오병훈
	2남선교회 2여전도회	■ 조두형		4남선교회 4여전도회	■ 박용준
	안수집사회	■ 최한운		권사회	■ 박지운
사회	사회봉사부	■ 전병주	□ 박화목		
	목회행정	■ 김정희	□ 김예성		
목회행정	IT미디어부	■ 남정열	■ 현성인	□ 김민석	□ 김하현
	자원봉사부	■ 최재선		홍보출판부	■ 남정열
	환경직목사기념사업회 / 역사위원회		■ 최승도	□ 박성민	

교구(목사&전도사)

1교구/ 강남	■ 이창조 □ 김재훈	10교구/ 종로·성북	■ 남정열 □ 박명일
2교구/ 강동·송파	■ 김충섭 □ 박찬양	11교구/ 노원	■ 전병주 □ 김하현
3교구/ 성동·광진	■ 탁현수 □ 김민석	12교구/ 강북·도봉	■ 강승훈 □ 이성재
4교구/ 중구·용산	■ 최승도 □ 남경식	13교구/ 서초	■ 김태균 □ 김모세
5교구/ 관악·동작·금천	■ 권혁일 □ 최원석	14교구/ 인천	■ 이후림 □ 한영훈
6교구/ 강서·구로·양천	■ 최한운 □ 박소망	15교구/ 성남·분당	■ 김정희 □ 박성민
7교구/ 서대문·은평	■ 박용준 □ 권영현	16교구/ 고양·파주	■ 박지운 □ 곽영진
8교구/ 동대문·중랑	■ 조두형 □ 김예성	17교구/ 안양·수원	■ 김진우 □ 박화목
9교구/ 마포·영등포	■ 오병훈 □ 전재량	18교구/ 용인·화성	■ 김형찬 □ 정창대

음악부

임마누엘찬양대	■ 박용준	갈릴리찬양대	■ 권혁일
갈보리찬양대	■ 이창조	할렐루야찬양대	■ 김진우
시온찬양대	■ 김충섭	베다니찬양대	■ 김형찬
호산나찬양대	■ 이후림	교회음악아카데미	■ 최한운
베들레헴찬양대	■ 남정열		

영락화랑

행진하여가라

이천이십이년 영락교회표어 온산  

고윤숙, 서예, 69×34cm, 2021년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겔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테까지 가라 (신명기 1:7)